

‘AICON 광주 2021’...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조망



내달 16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강연·학술회의·포럼 비제이 자나파 레디 교수 등 AI 7대 강국 전문가 30여명 연사 참여 투자 IR·채용 박람회·메타버스 활용한 퀴즈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광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AICON 광주 2021’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국내외 AI 전문가와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시가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하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에서’를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 이후 첫 AI 관련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세계 인공지능(AI) 기술 7대 강국에서 30여 명의 대표 연사가 참여해 AI 기술 트렌드를 짚어보고, 산업 융합 관련 인공지능의 역할과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AI

및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분야 기업들과 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바이어, 투자자, 스타트업 종사자들도 대거 참석해 다양한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컨퍼런스 행사 첫날인 12월 16일에는 AI 생태계의 스토리를 홀로그램 퍼포먼스로 구현한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하버드대학교 옛 컴퓨터연구소의 비제이 자나파 레디(Vijay Janapa Reddi) 교수와 구글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팀 김태원 전무의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비제이 자나파 레디 교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적, 산업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위한 산학협동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구글코리아 김태원 전무는 국내에서 구글과 해외 선두 기

업의 DT 사례, AI 기술 트렌드 등을 전파하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에는 행사 참석자와 세션 발표자 등을 위한 교류의 장인 ‘네트워킹 파티’를 열고 AI와 국악이 결합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17일에는 컨퍼런스, 포럼, 시민 참여 행사 및 축하공연, 투자 IR, 채용 박람회 등이 열린다. 발표 세션에서는 AI 비즈니스 트랙, AI 클러스터 포럼, AI 테크의 3가지 분야로 세분화한 주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와 산업융합을 위한 방법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내 로봇메카니즘연구소 데니스 홍 소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이 ‘AI, 산업의 변화를 이끈다’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 강연도 펼친다.

행사 마지막날에는 인간과 AI의 퀴즈대결 및 듀엣 무대와 특별 AI 강연 등 시민 참여 행사와 채용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중 1층 전시홀에서는 AI 기업 전시, 바이어 상담회와 AI로 확인하는 나의 피부 나이,

나의 노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중강 협실을 활용한 아이돌 커버 댄스 체험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물론 AI 스타트업 40곳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와 1대1 채용 상담회도 열린다.

‘AICON 광주 2021’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지침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방역과 1층 행사장 입구에 전신소독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네트워킹 파티에는 등록데스크에서 신분증 검사 후 ID카드 배포 인원만 네트워킹 파티 행사장에 입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AICON 광주 202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ICON 광주 2021’ (www.aicon-gwangju.co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컨퍼런스 주최 도시인 광주는 ‘국가 AI 혁신거점지’로, 국내 최대 규모·최고 성능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산업융합집적단지(AI집적단지) 착공 등을 앞두고 있다”면서 “광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평동3차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 본격 가동

이달부터 9월분 사용료 부과

악취발생 폐수처리공정 지하화

광주시는 “지난 8월 신규 조성한 평동3차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이달부터 9월분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평동3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7년부터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1단계 시설용량 550㎥/일 규모로 조성됐으며, 앞으로 산단 입주율에 따라 총 4단계로 2200㎥/일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깨끗이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산단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처리공정은 지하에 배치해 악취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했다.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인건비, 전기료, 약품비 등 유지관리비를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현재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폐수는 일 136㎥ 안팎이며, 일 처리 시설용량 550㎥ 대비 25%로 적게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는 1만1030원/㎥으로 다소 높게 산정됐다.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평균 사용료 단가인 2680원/㎥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이지만, 광주시는 입주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65% 정도 감면하고 단가를 3859원/㎥로 적용·부과할 계획이다.

장우현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향후 유입유량이 늘면 사용료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높은 상태임을 감안해 사용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위기가구 발굴’ 우수 5개동 선정

발굴단 96개동 5323명 활동

광주시는 “올해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우수기관으로 5개동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동장, 생활임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동별 민간협력 복지모델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명예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96개동 5323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수기관은 올 한해 사업실적과 창의성, 민간협력,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서구 금호1동 ▲우수상 북구 용봉동, 동구 계

림1동 ▲장려상 서구 농성2동, 남구 진월동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위기가구 발굴단 활동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광주지역 96개동에서 851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1270건의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민간후원 연계, 주거환경개선 등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냈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위기에 처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이웃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주변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시청(062-120)이나 구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온라인 소통방 ‘바로소통광주’

내달 6일까지 만족도 조사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민주시의 소통공간 ‘바로소통광주’의 시민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바로소통광주 이용 만족도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로소통광주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로, 2019년 3월 오픈 이후 지금까지 1670건이 접수됐다.

이벤트는 오는 12월6일까지 실시하며, 시민 만족도 조사 참여자와 생활 속 좋은 정책을 제안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300명을 추첨해 다음달 10일 선물권(기프트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안전체험 교육 광주시공사(사장 정민근) 임직원들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에 문을 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생활안전·자연재난·사회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수료했다.

시 농기센터 우수 친환경 학교 텃밭 16곳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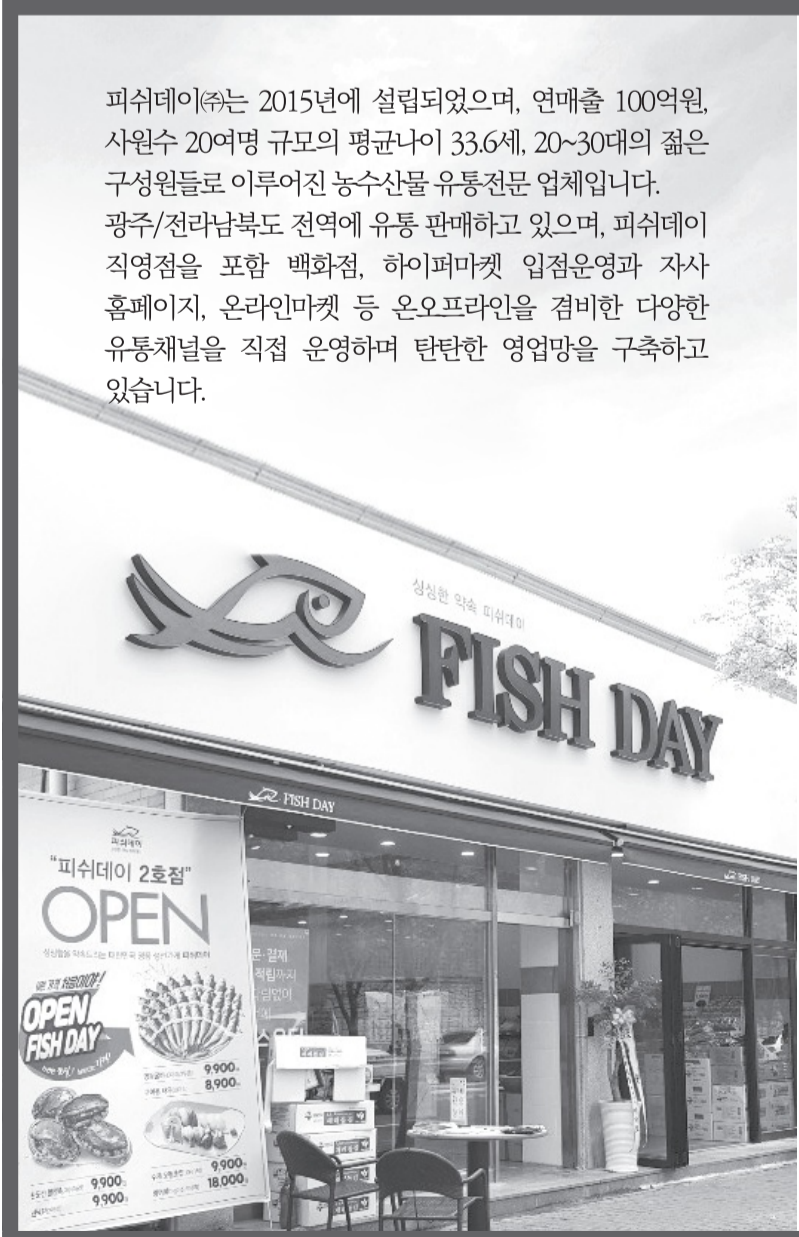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학교 텃밭의 우수 학교 16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학교 친환경 텃밭 조성 사업에 나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93개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21 광주시 친환경 학교텃밭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학교 급별 최우수상 5개교, 우수상 11개교를 선정했다.

학교 급별 최우수상은 라에송유치원, 신용초등학교, 살레시오중학교, 정광고등학교, 광주선광학교가 차지했다. 살레시오중학교는 학교 내 유희지에

조성한 텃밭 ‘살레시오 오라포리오’에서 상추, 무, 양파 등을 수확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톨릭 소식지를 통해 학교 텃밭을 세계에 알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용초등학교 송경에 교장은 “신용초교의 ‘햇살 가득 배움이 있는 텃밭’은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처럼 꾸몄다”며 “도심 속에서 느끼기 힘든 푸른 자연과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생태교육으로 생명존중 의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능력과 감수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